월요광장



김 찬 동 경기문화재단 뮤지엄본부장

오는 9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(이하 전 당)의 개관을 앞두고 지난 4월 말 전당의 핵심기관인 문화창조원의 사업에 대한 시민설명회가 열렸다. 창조원의 예술감 독이 교체되는 진통을 겪으면서 그간 베 일에 가려있던 그 구체적 운영 방향과 개 관 행사의 내용이 소개되었다.

문화정보원에서도 그 비전과 개관 준 비 현황을 알리기 위한 '열린 세미나'가 개최됐다. 전당의 운영 실무를 맡은 아시 아문화개발원도 아시아문화원으로 이름 을 바꾸고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. 광주정신을 토대로 아시아문화의 융 복합콘텐츠를 생산하는 아시아문화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10년간의 광주의 노력이 이제 곧 멋진 결실을 드러낼 모양

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에 대한 사고

이다.

그간 전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위상과 내용은 아시아문화창조센터, 문화콘텐츠 창조센터, 문화콘텐츠기획창작센터 등으 로 바뀌어 왔다. 문화자원을 첨단미디어 기술과 접합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꾀 하기 위한 포괄적 목표로부터 모바일 기 술을 기반으로한 미래형 교육콘텐츠 개 발,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창작을 겸한 기 반시설로서의 역량 등이 거론되어 온 것 이다.

이러한 위상과 중심 전략의 구체화는 전당이 그간 빠르게 변모하는 환경 여건 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 결 과로 평가할 수 있다.

최근 설명회를 통해 창조원이 밝힌 주 요 과제를 보면, 랩과 스튜디오를 기반으 로한 창작센터를 통해 융복합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아시아 동반성장을 위한 창조산업의 모델 발굴 및 문화예술과 과 학기술 융합형의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 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.

이 결과는 복합공간을 통해 전시되며 오픈랩의 형태인 시민공간을 통해 시민 및 지역 창제작공동체와 경험을 공유코 자하고 있다. 관심을 끄는 콘텐츠는 지역

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오픈랩 체험전 시, 아시아 영상미디어아트의 집합적 캠 프, 아시아 공예공방, 광대역 공간스캔을 통해 문화유산을 디지털로 보존하는 디 지털 헤리티지 등이다.

전당의 미래적 위상을 함축적으로 제 시코자 하는 대형프로젝트로는 개관 후 2-3년 간 전시될 '래빗 홀, 아시아(Rab→ bit Hole, Asia)'이다. 아시아적 상상력과 가능성을 탐구하여 다양한 키워드로 아 시아의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하 는 야심작으로 보인다.

이들은 근대성, 샤머니즘, 미디어, 국 가, 사회, 국제관계, 경계없는 혼성사회 등 아시아의 문화와 문명을 관통하는 담 론들을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해 낼 것으 로 기대된다.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엄 청난 시설과 첨단 장비, 그리고 예산이 수 반될 예정이다.

창조원 측은 이러한 구상과 프로그램 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창조생태계를 구 축코자 하고 있다. 전반적으로 계획과 구상은 일견 논리적 설득력이 있어 보인 다. 하지만 창조원의 페이퍼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학계의 주요한 경제, 사 회, 문화적 담론들을 모아놓은 듯한 인 상이다.

그 구상을 요약하면 예술과 인문학, 과학기술을 융복합하여 아시아적 문화 콘텐츠를 생산·소통하는 플랫폼을 조 성하겠다는 것이다. 아시아를 운위하고 있지만 그 정신적 구체성을 결여한 서구 적 담론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 공동체가 이를 체감할 수 있을 지는 미 지수다.

지향점들이 아시아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나 진지한 접근 방식은 미흡한 채 최첨단 디지털 아트의 테크놀로지와 물 량 과잉의 콘텐츠 생산이 강조된 서구적 아류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? 아시 아의 신화를 수집하는 정도로 아시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.

동양에 대한 서구적 담론들을 차용한 '래빗 홀, 아시아' 역시 아시아적일 수 없 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. '아시아문화중 심도시'가 표방하는 '중심'이나 '아시아 문화전당'의 '전당'이란 개념이 얼마나 전 근대적 발상인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아시아라는 단어의 정의로부터 그 지경 이 내포하고 있는 인문학적 넓이와 깊이 를 좀 더 겸허하고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 지 않을까?

社 說

호남선 KTX 장애 벌써 4건에 달한다니

개통 한 달을 맞은 지난 2일 호남선 KTX가 부품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돼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는 불편 을 겪었다. 이날 오전 6시 49분께 천안 아산역에서 출발한 호남 하행선(용산-목포) KTX 산천 505호의 4호 객차 외 부에 설치된 보호 덮개(비상용 사다리 등을 보관하는 장소의 덮개)가 열려 있

는 것을 승무원이 발견했다고 한다. 열차는 최대 속도(시속 300km)를 내 지 못하고 170km로 감속 운행하며 오전 7시 14분께 충북 오송역에 정차, 정비 에 들어갔다. 승객 376명은 새로 투입 된 일반 KTX로 갈아타고 목포 방향으 로 향했다. 열차 운행은 예정보다 17분 가량 지연됐다.

앞서 호남선 KTX는 개통된 지 사흘 도 못 돼 무려 세 차례나 장애가 발생, 승객들의 불안이 가중됐다. 지난달 2일 신형 KTX 515 열차가 운행 중 워셔액 주입구 덮개가 열려 청테이프를 붙이 는 등의 임시조치 후 목포역에 19분이 나 지연 도착했다.

지난달 4일에는 511 열차가 수신장치 '순간 오작동'으로 하천 교량에서 3분간 정차 한 뒤 출발해 목포역에 4분 늦게 도 착했다. 또 이날 까치집으로 인한 합선으 로 열차가 지연되는 사고도 있었다.

이들 사고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 더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 에서 안전불감증을 탓하지 않을 수 없 다. 보호구와 주입구 덮개가 열리고, 오 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은 그만큼 정비가 허술했다는 얘기다. 작은 실수 하나가 더 큰 화를 부르게 되 는 법이다.

그렇지 않아도 호남선 KTX는 비싼 요금과 더딘 운행, 편수 부족, 송정~ 목포 간 2단계 사업 지연 등으로 승객 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. 안전사고가 잇따라 불안까지 안겨 주고 있으니 걱 정이 아닐 수 없다. 코레일 측은 사고 경위 등을 철저히 따져 재발 방지에 나 서야 한다.

특별기고

박 행 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객원교수

지난 4월 24일 금요일은 네팔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화를 이룬 것을 기념하는 경축일이었다. 토요일은 일주일 중 단 하 루의 공휴일로써 우리도 모처럼 친구들 을 만날 겸 카트만두로 들어왔다. 시내중 심가는 차량을 통제하고 음식과 각종 상 품을 파는 부스가 설치되었는데 연속 3일 간의 거리 축제라서 사람들로 붐볐다.

네팔 크리스전늘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므로 카트만두에 올 때마다 참석하 는 교회의 예배에 여느 때처럼 25일에도 참여했다. 한 시간의 열정적인 찬양을 마 치고 설교가 시작되었는데 3층 바닥이 심 하게 흔들려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. 잠 시 후 지진임을 알아차리고 재빨리 입구 까지 왔지만 계단을 내려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. 문설주를 붙들고 서서 한참의 흔 들림이 멈춘 후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. 낮 12시였다.

지진이 나면 곧바로 건물 밖으로 뛰쳐 나가지 말고 유리창에서 먼 곳, 안전 삼각

네팔 지진 현장에서

지를 찾아서 머리를 감싸고 웅크리고 있 으라는 것, 흔들림이 멈추고도 30초를 기 다리라고 교육받고 연습까지 했건만 아 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.

거리 풍경은 한 시간 전과는 판이하게 달랐다. 더 이상 축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어수선한 가운데 상인들은 물건들 을 주섬주섬 챙겨서 철수를 서둘렀다. 계 속되는 미세한 지면의 흔들림, 우왕좌왕 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몸을 제대로 가누 지 못하고 움직이는데 어지럽고 속이 메 스꺼운 것이 배 멀미를 하는 느낌이었다.

길가에는 오래된 벽돌가옥들이 폭삭 무너져 돌무덤을 이루었고 부상자들은 공터에 누워있었다. 대형 마트와 슈퍼들 도 셔터를 내렸다. 물건들이 선반에서 쏟 아져 내리고 유리병들이 깨진 상태에서 혹시 있을 돌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

다음날 돌아본 카트만두는 어제와 다 른 모습이었다. 시가지 주위를 따라 만들 어진 링로드(Ring Road)를 한 바퀴 돌면 제자리로 돌아온다. 이 링로드를 따라서 허름한 비닐을 지붕 삼아 끝이 보이지 않 는 난민촌이 하루 사이에 형성되었다. 어 떤 이들은 공사용 콘크리트 원통 속에 자 리를 잡았고 일부는 그냥 노천에 앉아있 었다. 지금은 건기인데도 날씨가 흐려지 더니 비가 내렸다. 야영하는 난민들이 더 욱 안쓰러웠다.

둘째 날 저녁에도 제법 센 여진으로 부

얼바닥이 흔들리고 속이 울렁거렸다. 우리 도 드디어 차고에 자리를 펴고 누웠다. 비 가 내려 더욱 처량한데 쥐가 이부자리 가 까이 돌아다니고 모기도 왱왱거린다. 이 난리 통에 웬 모기장이냐고 타박을 하면서 도 모기장을 쳐주는 남자들이 고마웠다.

셋째 날에도 여진이 계속되었지만 단 지 밖의 동네를 둘러보러 나갔다. 네와리 족들이 많이 사는 카트만두의 전통가옥 들은 3, 4층 벽돌건물인데 대다수가 일부, 혹은 전부가 무너져서 벽돌 무더기를 이 루고 프로판 가스통, 냄비, 옷가지들이 널 려있었다. 어떤 집은 조금만 건드려도 무 너질 것 같아서 그 앞을 피해다녔다.

여기저기 천막에 수십 명씩 둘러앉아 서 식사를 기다리는데 큰 양푼 두 개에 하 나는 밥, 하나는 녹두죽을 끓여서 주식인 달밧을 만들고 있다. 일회용 접시에 달밧 을 담아서 손으로 버무려 먹는데 사람이 많으면 녹두죽에 물을 타서 좀 더 묽게 하 면 되니 이런 비상시국에 제격이다. 자기 들 먹기도 부족할 텐데 우리에게 같이 먹 자고 권한다. 이들은 비 맞으며 밤을 새우 고 똑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이 재난을 견 디고 있었다.

다. 드디어 4일째가 되니 훨씬 안정되고 여 진도 잦아들었다. 지진 후 다섯째 날에는 대한항공 특별기가 교민들을 데리러 왔다.

지진이 날씨가 춥지 않고 공휴일인 토 요일에 나서 천만 다행이다. 학교들이 비

어있었고 재해 지역에서 공사 프로젝트 를 수행하던 한국인들은 현장에 없었기 에 화를 면했다. 그러나 이번 지진으로 유 네스코 문화재로 등록된 수많은 사원과 왕궁들이 파괴되었다. 사상자 수는 날마 다 늘어나고 있으며 병원마다 시신들을 방치할 수 없어 하루 종일 태우고 있다고 한다. 수인성 전염병과 생필품, 식수 부족 으로 생길 어려움과 이에 따른 돌발사태 들을 걱정한다.

교민 사회에서 이들을 도울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. 이런 와중에 몇몇 서양인들 이 자동차에 먹을 것을 싣고 거리에 나섰 다가 사람들이 달려들어 서로 받으려고 아우성치는 바람에 먹을 것들을 던져놓 고 도망치듯 빠져나왔다고 한다.

한국에서도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모 금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올 것이다. 이때 도울 대상과 범위를 잘 정하 고 지혜롭게 분배해야 한다. 개인행동을 자제하고 현지인들과 함께 경찰의 통제 와 보호를 받으며 구제와 구호활동을 해 야 한다. 잘못하면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

다친 사람들이 건강을 되찾고 거리에 나 견고한 새 건물들이 속히 폐허의 공간을 채우기를 바란다. 그러나 수백 년 된 귀중 한 문화재들의 옛 모습은 다시 찾지 못할 지도 모른다. 가공할 자연재해 앞에서 인 간의 무력함을 절감하며 숙연할 뿐이다.

'권장소비자가격 표시' 강제할 필요 있다

無等鼓 👀

역사적 기록

'반값 아이스크림'은 진짜 반값일 까? 알 수 없다. '며느리도 모르는 아이 스크림 값'.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.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아이 스크림 가격은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 느리도 모른다.

이는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. 대형마트나 수많 은 소매점에서는 빙과·과자·라면 등 의 판매대 앞에 '반값 할인' 등의 문구 를 내걸고 할인행사를 한다. 하지만 원 래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식품 제조업체들 때문에 소비자가 얼마나 싸게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.

실제로 최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 머리서치가 아이스크림 등 31개 제품 을 조사했는데 가격이 적혀 있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었다고 한다. 아이스크림 뿐만 아니라 과자류도 마찬가지다.

같은 기관의 2년 전 조사와 이번 조 사를 비교해 봤더니 가격을 표시한 과 자가 77%에서 53%로 23%가량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. 소비자 선호도가 높 은 31개 품목의 가격 표시는 다 사라졌 다. 라면 역시 가격표시 제품이 51%에 서 45%로 6%가량 줄었다.

왜 이처럼 된 것일까. 이는 가격을 표 시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.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의 무는 지난 2010년 7월 최종판매업자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'오픈 프라이스'(Open Price) 제도가 도입되 면서 없어졌다. 이후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'할인율 뻥튀기'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가격표시제가 부활됐다. 하 지만 의무제가 아니고 권장사항일 뿐이 어서 업체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다.

따라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 차 원에서라도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제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. 시장 자율에 맡기 는 것이 최선이라 하지만 업계의 윤리 경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. 언제 까지 규제 완화의 명분에 매달려 있을

26일 중국 하얼빈역. 조선 침략의 원흉 지진 후 72시간 까지가 위험하다고 했 앉은 이들에게 돌아갈 집이 마련되기를, 이토 히로부미가 탄 열차가 오전 9시께

하얼빈 역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왔다. 새벽부터 역 구내 찻집에 나와있던 안 중근(31)은 몸을 일으켰다.

경술국치 10개월 전인 1909년 10월

9시30분께 열차 밖으로 나온 이토가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고 열차로 되 돌아가려는 순간, 고막을 찢는 총성이 차가운 공기를 뒤흔들었다. 러시아 의 장대 뒤에 바짝 붙어섰던 안 의사가 순 식간에 앞으로 뛰쳐

나가면서 손에 든 브 라우닝M1900 권총 을 발사한 것이다. 안

의사로부터 6M 가량 떨어져 있던 이토 는 한민족의 원한이 새겨진 세 발의 총 탄을 맞고 절명했다.

돌이켜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 해지는, 안중근 의사의 '이토 저격' 상 황이다. 불행히도 우리는 이 장면을 실 제로는 보지 못했지만, 천만 다행히도 당시 저격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 어 딘가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미국 연예잡지 '버라이어티'는 이토 저격 이후 달포 가량이 지난 1909년 12 월 6일자 기사에서 "러시아의 한 영화 사가 특별한 필름에 대한 구매자를 찾 고 있으며, 이 필름은 한국인이 일본 이 토 총독을 저격했던 당시에 촬영된 것" 이라고 쓰고 있다.

또, 싱가포르의 영자신문 '스트레이 트 타임스'도 같은 해 12월22일 기사에 서 "(저격)필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결국 재팬프레스 에이전시에 근무하는 타노마기 게이이 치가 1만5000엔(현재 가치 약 2억 원) 에 구입했다"고 기록하고 있다.

1932년 4월 29일, 중국 상하이 홍커우

공원에서 일왕 생일 기념식 단상에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(당 시 25세)의 경우엔 현

장에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는 사진이 남아있다. 진위 논란에 휩싸였던 이 사 진은 최근 '진짜'라는 증거가 발견돼 '역 사의 기록'으로서 위치를 되찾기도 했다.

역사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 은 우리 민족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관 한 기록이며, 이들 '역사적 기록'을 찾 아내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무 이기도 하다. '괘씸한 이웃' 일본과 갈 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, 눈살만 찌푸 리고 있을 게 아니라 안 의사의 저격 동 영상부터 찾아보면 어떨까.

/홍행기 경제부장redplane@

편견없는 시선으로 장애인 바라보기



기 고

장 경 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장

"엄마, 아빠와 어린 아이들이 가림막을 가운데 두고 스크린 속 사람들의 우스꽝 스러운 표정을 따라해 보는 테스트를 한 다. 그런데 누군가가 등장하자 어른들의 표정은 어느 새 굳어진다. 그러나 아이들 은 변함없이 스크린 속의 사람들을 따라 한다. 어른들의 표정이 무거워진 것은 일 부러 웃긴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 다 진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얼굴을 마주 쳤기 때문이다."

이것은 프랑스의 한 비영리단체가 제 작한 공익광고의 내용이다. 어른과 아이 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 은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 또 이 공익광고는 장 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을 변함없이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를 통 해서 차별과 편견이 없는 '아이들의 시선' 으로 장애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

지를 전달하고 있다.

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인해 여 전히 장애인이 살아가기에는 힘든 부분 이 많다. 특히 아직도 많은 기업인들이 장 애인의 업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 견을 가지고 있다. 이런 편견 탓에 장애인 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해 경제적인 어 려움을 겪고 있다.

이런 현실은 장애인고용률에서도 여실 히 드러난다. 법에서 정한 민간기업의 장 애인 의무고용률은 2.7%이지만 현실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는 2.48%정도다.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이행하는 곳은 50.

8%로 절반에 그치고 있다.(2013년도말 기준)

얼마 전 미국에서는 청각장애여성이 오 바마 대통령의 비서로 발탁된 일이 있다. 그녀는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하는 손님들 의 사전 약속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. 대통령을 만나거나 통 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녀의 승 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. 수화통역사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녀의 장애가 그녀 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 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.

외국의 사례를 마냥 부러워하고만 있 어서는 안 될 것이다. 물론 우리에게도 장 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희망은 있다. 우선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 해 법정 고용률을 오는 2019년까지 점차 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. 정부 부문의 장애인 법정 고용률은 3.0%에서 3.4%로, 민간부문은 2.7%에서 3.1%로 상향해 나 갈 계획이다.

여기에 인식전환이라는 더욱 희망적인

부분도 있다. 유명 커피체인점의 바리스 타가 된 지적장애인, 특1급 호텔의 호텔 리어가 된 발달장애인, 대학병원의 동료 지원가가 된 정신장애인 등 절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여겼던 업종에 장애인들이 진출해 뛰어난 업무 성과를 내면서 점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.

장애인 고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'장애인은 일을 할 수 없다'는 편견을 걷어낸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자리의 기회를 얻어 당당하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다.

'편견없는 시선'이 잠깐 외쳐지는 구호 에 그치거나 일회성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 록,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장 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과 편견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되었으 면 한다. 또,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 의 경제적 자립에 가장 필요한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.

光则日報

사 회 부 2200-663

The Kwangju Ilbo

사장·발행·편집·인쇄인 金汝松 주필 中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(일간)

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(우편번호 501_710) 대표전화 222-8111·2200-551〈지사·지국(구독신청·배달안내)〉 **광고문의 062-227-9600** 경영지원국 2200-515 문화사업국 2200-541

편집국안내 (대표 FAX 222-4918) 편 집 부 2200-649 문항생활부 2200-661 정 치 부 2200-642 여론매체부 2200-696 〈대표 FAX 222-4918〉 체 육 부 2200-697

〈대표FAX 222-4267〉 조 사 부 2200-571

사 진 부 2200-693

⟨F A X 222-8005⟩ ⟨F A X 222-0195⟩ 광고마케팅국 227-9600 독자서비스국 2200-551 A X 227-9500> (F A X 227-9500) 디 자 인 실 2200-536 서 울 지 사 02-773-9331 프로젝트팀 2200-555 〈F A X 02-773-9335〉 ※구독료 월정 10,000원 1부 500원

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

독자투고·기고를 기다립니다.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, 생활의 경험,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.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. 원고를 보내실 때 는 이름, 주소,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.

독자투고·기고 환영합니다

501-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-2200-696/팩스 062-222-4918/e메일 opinion@kwangju.co.kr